

# 대출한도 수천만원 또 깎인다...더 높아진 은행 문턱

###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스트레스 가산 금리 50%로 연봉 5천만원 변동금리 주담대 3억7천700만원→3억5천700만원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대출한도가 더 깎이는 만큼,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2단계...1단계보다 스트레스 가산금리 ↑·대출한도 ↓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능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름 뒤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한도 수준 1.5%p로 결정된다.

가능성이 큰 1.5%p를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로 가정하면, 2단계에서는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별로 현재 금리에 각 0.75%p·0.45%p·0.23%p를 더해 DSR을 계산하게 된다.

시행 1단계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

용 비율이 일제히 50%로 높아지게 된다.

◇신용대·주담대 모두 스트레스DSR...대출문턱 '쑥'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현행 1단계 DSR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3억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대출은 3억 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나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은 각 1200만원, 700만원으로 변동형 상품보다 작다.

변동형보다 혼합형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의 조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브라마 파크골프' 매장 오픈 16일 광주신세계 '브라마 파크골프' 매장 직원이 파크골프채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문을 연 브라마 파크골프는 여성 전용 클럽과 클럽 가방 등 인기 제품을 판매 중이며, 오픈을 기념해 클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장갑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투자전문가 사칭 해외주식 권유 주의하세요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16일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해 달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주식투자 광고 등 상담신청 메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방이 있다며 단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는데, 단체 채팅방에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 하치우스 등 대화명을 쓰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사칭 피터 린치, 안 하치우스 등은 마치 통역 앱

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듯한 말투로 생소한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다른 운영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이들 전문가의 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매매를 유인한다.

이들의 말에 따라 매매한 투자자들이 몇 차례 소액의 이익을 얻게 한 다음 마지막에 보유자금을 전부 매수하게끔 지시한 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 채팅 앱에서 연락이 두절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공식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 사업의 실제 등을 투자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일대일로 투자조건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 인지도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연락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위기의 자영업' 구조개혁... '폐업→취업' 출구전략 짚는다

### 정부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

### 경쟁력 낮은 자영업자 취업 지원

정부가 '600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

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 지원은 경쟁력 제

고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안이다. 가령,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을 돕는 식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자영업 구조개혁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추진될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 구조개혁 등 사회 구조조적인 과제를 겨냥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 광주지방세무사회 제50회 정기총회 성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 14일 제 5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세무사 사명에 충실히 이바지한 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세무사회는 광주, 전남북지역 850여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법정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사의 공익적 사명을 위해 전 회원이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회원 간 소통 증대를 통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과세당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74년 창립 이래 투철한 직업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행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도움으로 광주국세청은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세무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 5월 한달 판매 전년비 25% 증가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 달간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 작년 5월보다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었다.

시스템에어컨은 공간 활용도가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 디자인과 공간 활용 등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졌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설치가 어려운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스템에어컨을 삼성전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도 최대 6대까지 8시간 만에 설치하면서 판매가 늘었다.

지난달 거주 중인 집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건수도 작년 5월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한 인공지능(AI) 기능, 무풍 냉방 등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김현화)는 지난 12일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2013년 창립해 110여개 여성벤처기업이 활동 중이며, 여성벤처기업 우수제품박람회, CEO혁신아카데미 여성벤처포럼 등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우수여성벤처기업인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시장상에 김미옥 ㈜에스엔젤스 대표 등 3

명, 전남도지사상에 고민건 (주)고려전통식품 부장 등 3명, 심미라 디딤환경산업 대표 등 3명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화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장은 "부드러운이 역성을 이기고 약함을 이기는 이치처럼 우리 앞으로는 슬기롭게 변화에 대응하면서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박차를 가할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해양에너지, 광주시와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합동 대책점검 논의결과에 맞춰 취약해 대비 도시가스시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올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주시와 함께 진행하는 '2024년 하절기 풍수해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침하 우려가 있는 교량과 급경사지 등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다가올 여름철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해양에너지는 기대하고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우기철 집중되는 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로또복권 (제 112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8	17	30	33	34	2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23,327,913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255,324	87
3	5개 숫자일치					1,400,005	3,12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630
5	3개 숫자일치					5,000	2,619,643